

개방과 정비... “종가집이 달라졌다”

영축총림 통도사에 부는 변화의 바람

1년에 단 3번만 공개되던 ‘불보’ 사리탑을 이제는 누구나 가까이서 볼 수 있다. 5만여 평 규모로 조성된 연꽃단지과 매실, 차밭에는 두루미가 돌아왔다. ‘출입금지’ 팻말 대신 ‘삼가해주세요’라는 부드러운 표현이, 출입을 제한하던 철망은 모두 사라졌다. 신라 선덕여왕 15년(646) 자장 율사가 창건한 이래 불지종가의 명맥을 이어왔던 양산 통도사에 변화의 새바람이 불고 있다.

인과 밖의 경계를 허물다

2007년 5월 주지로 임명된 정우 스님은 1년 중 단 3일만 일반에 공개되던 금강계단 ‘사리탑’을 완전 개방했다. 이곳에 불전함을 놓아 모인 약 3억여 원을 불우이웃을 위해 기부했다.

지역의 여러 사회단체에 특명이 후원금도 전달했다. 또 작년 북한 홍수와 올 초 미얀마 태풍, 중국 쓰촨성 지진 참사 등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곳으로 사리탑 불전함의 보시금이 보내졌다.

주지실을 비롯한 스님들이 거처하는 곳 등 경내 곳곳에 부착된 ‘출입금지’ 팻말을 모두 ‘삼가해주세요’란 부드러운 표현으로 바꿔 달았다. 위압적이던 쇠사슬과 자물쇠 경계 역시 정겨운 나무문으로 바꿨다.

템플스테이 수련관도 보수공사에 들어갔다.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명상센터와 휴게실 등이 새롭게 꾸며질 예정이다.

환경 정비후 두루미 등 돌아와 통도사 내부에서의 변화가 다가 아니다. 통도사는 영축산의 환경을 보전하고 관리하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다.

무분별하게 심어졌던 외래종 나무들은 육림 차원에서 정비했다. 사찰과 어울리지 않거나 조형적으로 눈에 선 나무들을 제거하고 오래된 소나무가 돋보이도록 주변 잡목은 베어냈다. 이 재목은 근무자들이 쉬어가는 초소를 짓는데 활용했다. 느티나무, 뽕나무, 소나무 등 한국의 나무들을 곳곳에 심었다.

절 뒷자락 습지에 5만여 평의 연꽃단지과 매실, 차밭을 조성했다. 도로변엔 진달래, 철쭉, 코스모스 등 야생화를 심어, 절을 찾는 이들로 하여금 편안하고 불거리 많은 절이 되도록 했다.

통도사는 “잘 보존해놓으니 떠났던 두루미며 꿩, 원앙, 오리들이 다시 찾아왔다”며 계속해서 절 입구 일주전에서 사찰을 지나 영축산 중턱에 이르는 산책로를 따라 환경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도사는 말사 주지 임명에 유



완전 개방된 금강계단을 돌며 기도하는 불자들.

래 없던 획기적인 방안도 제시해 주목받고 있다. 통도사 각 말사 주지 후보들에게 앞으로 사찰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주지 선출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다.

자장 율사의 염원을 담아

변화의 바람 속에서도 1984년 연 우리나라 5대 총림 중 하나로 문을 연 영축총림의 정신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각별하다.

불보사찰 통도사의 금강계단은 우리나라 불교의 계맥을 이어가는 곳이다. 통도사는 “현재 국내 사찰 중 금강계단이 형성된 곳은 백제시대의 김제 금산사와 신라의 통도사 단 2곳”이라며 “삼국통일 후 통일신라에서 금강계단의 제 역할을 한 곳은 사실상 통도사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유래와 전통이 확고한 통도사 금강계단에서 비구, 비구니계를 받았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갖게 할 방법을 모색 중이다.

과거사건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한 통도사는 구하 스님의 친일 행적에 이의를 신청하는 등 과거사 진상규명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통도사의 역사를 정리하는 사적편찬도 진행 중이다.

산중에서 도심으로, 신비로운 천년고찰에서 마음 편히 쉬어가는 쉼터로,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온 통도사의 신선한 변화는 오늘도 쉽게 계속된다.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인터뷰 | 통도사 주지 취임 1주년 맞은 정우 스님

“경계없애고 대중과 함께하는 도량 만들 것”

“저는 주지하려고 통도사에 온 게 아니에요. 일을 하러 왔습니다. 제가 출가해 열심히 수행하고 지금의 제가 있게 해준 고향에 돌아온 겁니다. 이제 제 모든 것을 통도사의 발전과 미래에 회향 해야지요.”

통도사에 부는 신선한 변화의 바람. 그 중심에 주지 정우 스님이 있다.

“종교는 사회의 율활유나 비타

민 같은 존재예요. 통도사는 신중에 있지만 도심과 대중에 가까이 다가와 사찰과 지역사회, 승려와 일반 대중이 함께 어울리고, 서로 활력을 불어넣어 주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스님들만의 공간처럼 어렵고 생소했던 통도사 도량의 경계를 차례로 허물어냈다. “금강계단을 개방하고, 철조망을 걷어내고, 내방객을 위한 쉼터를 만들고, 이

모든 게 경계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는 정우 스님은 “물리적인 경계를 시작으로 사부대중에게 관심을 갖고 배려하고 친절한 어울림을 행하면 마음의 경계도 허물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우 스님은 “법회를 통해 절을 찾는 신도는 부처님께, 관광객들에게는 자연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한다”면서 “사람과 자연이 닮아갈 때 비로소 심성도

고와지고 삶의 여유와 활력도 갖게 된다”고 신도와 일반인에게 모두 열린 사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승려가 대중에게 있어 존경받고 가르침을 주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스님은 “승려의 행동은 곧 자비행이고 보살행이어야 한다”며 대중을 위한 사찰을 만들고자 하는 포부를 밝혔다.

정우 스님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계기로 조계종 각 교구본사에서 주지스님들이 매년 지난 1년을 평가하고 향후 계획을 수립하는 브리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우 스님의 남은 3년 임기동안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오세훈 부산지사장

총지종 정각사, 양계 만다라 봉안 대법회

티베트 현지 밀교 스님들이 직접 제작



부산 정각사주교 법공은 5월 26일 법당에서 양계 만다라 봉안 대법회(사진)를 봉행했다.

만다라는 불보살의 세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밀교 특유의 불화로 삼라만상의 본질과 깨달음, 불보살의 세계를 상징적으로 형상화했다.

이번에 봉안된 만다라는 밀교 경전 중 <대일경>과 <금강정경>에 근거한

‘태장계 만다라’와 ‘금강계 만다라’로 각각 이뤄졌다. 가로 2.8m, 세로 3.2m 규모로 티베트 현지의 밀교 스님들이 직접 제작, 조성했다.

이날 법회는 부산경남교구장 대원상의 본질과 깨달음, 불보살의 세계를 상징적으로 형상화했다.

이날 법회는 부산경남교구장 대원상의 본질과 깨달음, 불보살의 세계를 상징적으로 형상화했다.

이날 법회는 부산경남교구장 대원상의 본질과 깨달음, 불보살의 세계를 상징적으로 형상화했다.

제45차 전국 어린이 지도자 연수회

매년 지도자 교육·양성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전국의 어린이포교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제45차 ‘전국 어린이 지도자 연수회’는 매년 신임 있는 지도자 교육과 양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올해는 6월 6일부터 2박3일간 속리산 유스타운(충북 보은 소재)에서 진행된다.

조계종 포교원이 주최하고 사단법

인 등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약 500여명의 지도자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가비는 당일 7만원, 사전 접수 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올해는 6월 6일부터 2박3일간 속리산 유스타운(충북 보은 소재)에서 진행된다.

051)864-4665

박지원 기자

해원정사 소년소녀가장돕기 음악회

불교와 예술의 만남

부산 해원정사주지 원혜와 사회복지법인인 5월 31일 해원정사에서 해원 음악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소년소녀가장과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그동안 약 100여 명의 소년소녀

가장에게 5000여 만 원을 후원하는 등 소외된 이웃과의 나눔을 실천해왔다.

이번 음악회는 개그연예인, 이희구(BBS ‘활력충전’ 진행자의 사회로 남해 용문사 주지 성진 스님과 해원정사 대학생 댄스팀, 가수 송대관, 추가열, 임수정, 강진 등의 무대로 꾸며졌다.

박지원 기자

현대불교 부산지사 광고·구독 문의(051)632-4440

기사내쳐 '부루나존자'는 쉽니다.

장사 성공의 법구 금강삼고저

안되는 장사, 안되는 사업, 산재 사고도 예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사업 성공의 선물로도 품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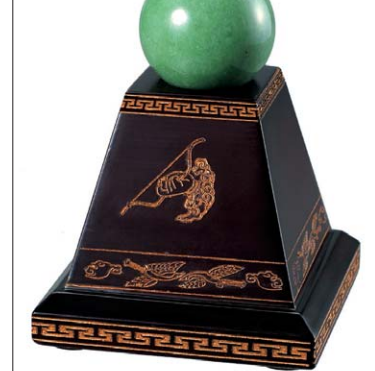
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법구인 금강삼고저는 밀교법구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가 보기가만 해도 도망가고 화로부터 사업장의 안전을 지키며 사업장의 성공을 위해 동서사방에서 인연의 귀인들을 불러드리는 영험의 법구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불심사에서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기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문안쪽 위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보시가격: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동협032-12-193445 이상하

장사와 사업 흥왕의 비방 법구

석당, 기둥,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종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터, 헬스클럽, 분당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국상, 방앗간, 공점,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영험의 구슬 보궁여의주

필승합격과 승진의 영험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구슬이다. 전설에 따르면 아들형제를 데리고 어렵게 살아가는 어머니가 남섬부주 바닷가에 떨어져 있는 구슬두개를 너무나 아릅답고 신비해 집에 가져왔다. 집에는 관료가 되어 어머니를 편히 모시겠다는 형제가 시험만 보면 번번이 낙방을 하며 세월만 보내고 있었다. 아들에게 집에 오는길에 예쁜 구슬을 주었다고 보여주었다. 구슬을 본 형제는 참 신비한 구슬 갖어요, 어머니는 아들 형제

시험을 보면 꼭 1~2점차로 낙방

에게 하나씩 주었다. 그후 매년 낙방하던 형제가 그해 관료에 등과되어 어머니는 소원을 이루고 건강장수 하고 관료가 된 형제는 큰 공덕을 쌓으며다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각종 불경 해석서를 보면 제석천왕과 아수라가 싸울때와 전륜성왕이 바위를 부술때에 남섬부주에 떨어져 변한것이라고도하고 용왕의 몸에서 나와 사람이 여의주를 집안에 두고만 있어도 독이 해칠수 없고 불속에 있어도 타지않고 권세와 명예를 얻는 공덕이 있다. 구슬로 사갈라 용궁에도 있고 여의의 관세음부처님 두손에도 들고있어 중생들이 뜻한바가 이루어지는 비방의 법구도 삼고 있다. 시험을 보고나면 꼭 1~2점차로 낙방을 한다. 수험생들은 한두문

제로 인해 1년을 또 고통속에 시험 준비를 하고, 승진시험도 승진심사관 심사위원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느냐에 달려있다.

보궁여의주는 수험생에게 부처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를 주고 부처님 가피로 승리하는 비방의 법구다.

불광사에서 필승합격과 필승 승진을 위한 축원불공을 마친 보궁여의주는 길상원목으로 품위있게 제작하고 수험생의 필승합격을 위해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리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준다. (신용카드분할가)

보시가격:95,000원
문의(02)741-4488
동협032-12-193445 이상하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원하는 계획이 성취되는 영험



소중한 남편과 자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법구에는 세상은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가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불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역시 연이되면 돈이 동서 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면 지갑은 돈을 들어오지 않고 고통만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묘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점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친 다

라니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돈이 들어오게 하는 비방의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 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고급소가죽에 금나누, 은나누 처리 까지한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불광사에서 지갑 사용하실 분의 물질의 소원과 원대한 계획이 성취되게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립니다. 남성용 금나누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은나누장지갑95,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동협032-12-193445 이상하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